

한중경제포럼

제09-07호 2009년 10월 26일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분석과 전망

2009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제 :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분석과 향후 정책 전망
2. 일시 : 2009. 9. 22 (화) 16:00~18:00
3. 발표자 : 장옌성(张燕生) / 거시경제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소장

1. 중국의 대외개방 발전 현황

-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1978년 206억 달러에서 2008년 2조 5,616억 달러로 123배 증가하였음. 무역수지도 1978년 11억 달러 적자에서 2008년 2,955억 달러 흑자로 반전하였음.
- 이와 동시에 가공무역도 신속하게 발전하였음.
 - 가공무역은 중간재와 부품을 수입한 후 중국에서 가공·조립하여 재수출하는 무역 방식으로, 중국의 대외무역 중 가공무역 방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 가공무역은 국제자본과 중국 잉여생산력이 결합된 결과임.
 - 80년대에는 의류, 방직, 가방, 신발 등 제품을 수출하는 홍콩과 동남아 투자 기업과 합작한 경공업 제품의 가공무역에 중점을 두었음.

○ 90년대에는 다국적기업이 일부 부품 제조와 조립 등의 생산라인을 중국대륙과 대만 및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면서 IT 등 제품의 생산이 중국으로 이전되었음.

- 2008년 가공무역 흑자 총액은 2,968억 달러로써 2,955억 달러의 무역흑자 총액을 초과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소량 수입에 힘입어 무역흑자를 실현하였다고 하는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임.

<표1> 무역방식과 상품분류에 따른 중국의 수출입 총액

(단위: 억 달러)

연도	무역방식						상품분류			
	일반무역		가공무역		기타무역		1차 제품		공업완성품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81	208.0	203.7	11.3	15.0	0.8	1.4	102.5	80.4	117.6	139.7
1985	237.3	372.7	33.2	42.7	3.0	7.0	138.3	52.9	135.2	369.6
1990	354.6	262.0	254.2	187.6	12.1	83.9	158.9	98.5	462.1	434.9
1995	713.7	433.7	737.0	583.7	37.1	303.4	214.9	244.2	1,273.0	1,076.7
2000	1,051.8	1,000.8	1,376.5	925.6	63.7	324.6	254.6	467.4	2,237.4	1,783.6
2005	3,150.6	2,796.3	4,164.7	2,740.1	304.2	1,063.1	490.4	1,477.1	7,129.2	5,122.4
2008	6,625.8	5,726.8	6,751.8	3,784.0	915.4	1,812.7	778.5	3,627.8	13,507.1	7,703.1

<표2> 중국의 무역수지 구조

(단위: 억 달러, 배)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일반무역수지	-15.8	70.8	-56.2	-45.4	354.3	831.3	1,098.4	899.0
가공무역수지	534.6	577.3	789.5	1,062.8	1,424.6	1,888.8	2,490.9	2,967.8
기타무역수지	-293.4	-343.8	-477.8	-696.5	-758.9	-945.3	-971.0	-897.3
무역 수지총액	225.5	304.3	254.7	320.9	1,020.0	1,774.8	2,618.3	2,954.6
가공무역수지/ 무역 수지총액	2.37	1.90	3.10	3.31	1.40	1.06	0.95	1.00

□ 외자유치에서도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음.

- 실제 이용한 FDI는 8,000억 달러를 초과하여 17년 연속 개도국 중에서 제1위를 차지하였음.
- 외환부족과 자본부족이라는 중국경제 성장의 양대 문제를 해결한 외자유치는 중국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표3> 중국의 실제 이용 외자 개황

(단위: 억 달러)

	합계	대외 차관	직접 투자	기타 투자
1979-1982	130. 60	106. 90	17. 69	6. 01
1983	22. 61	10. 65	9. 16	2. 80
1985	47. 60	25. 06	19. 56	2. 98
1990	102. 89	65. 34	34. 87	2. 68
1992	192. 03	79. 11	110. 08	2. 84
1995	481. 33	103. 27	375. 21	2. 85
2000	593. 56	100. 00	407. 15	86. 41
2001	496. 72		468. 78	27. 94
2002	550. 11		527. 43	22. 68
2003	561. 40		535. 05	26. 35
2004	640. 72		606. 30	34. 42
2005	638. 05		603. 25	34. 80
2006	670. 76		630. 21	40. 55
2007	783. 39		747. 68	35. 72
2008	952. 53		923. 95	28. 58

□ 중국의 해외투자도 빠른 성장단계에 접어들었음.

- 2007년 말까지, 중국의 해외투자 누계는 1,179억 달러(금융류 FDI가 167.2억 달러, 비금융류가 1,011.9억 달러를)를 달성하였음.
- 중국은 대외투자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 2008년 중국의 FDI는 521.5억 달러에 달하였음.

□ 중국의 서비스무역도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와 수입과 수출에서 모두 세계 제5위를 차지하였음.

- 서비스무역은 국제서비스(통신, 우편과 금융의 국제 서비스), 해외소비(유학, 해외여행), 비즈

니스(해외에 서비스기업 투자설립), 인력 이동(외국 변호사와 외국교사 초빙 등) 등을 포함하며,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 서비스무역은 국제운송과 보험, 기술이전임.

- 국제 서비스무역 수출액은 1980년 3,650억 달러에서 ~2008년 3조 7,300억 달러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 8.7%를 기록, 화물무역보다 현저하게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
- 서비스무역 수출액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7%(1980년)에서 23.7%(2008년)로 상승하였음.
- 중국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은 1982년의 44억 달러에서 2008년의 3,044.5억 달러로 증가하였음(연평균 증가율은 17.7% 기록). 국제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6%에서 4.2%로 상승하여 2008년에 세계 제5위를 차지하였음.

<표4> 2008년 국제 서비스무역 상위 5위 국가

(단위: 10억 달러, %)

수출입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미국	866	12	미국	522	14	미국	364	10.5
독일	520	7.2	영국	283	7.6	독일	285	8.2
영국	482	6.7	독일	235	6.3	영국	199	5.7
일본	310	4.3	프랑스	153	4.1	일본	166	4.8
중국	290	4	중국	146	3.9	중국	158	4.5

2. 중국경제 현황

□ 2009년 8월은 중국 경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음.

- 2009년 8월 중국의 소비 성장률은 15.4%, 투자 성장률은 33%를 기록하여 중국 내수 현황은 비교적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8월 공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12.3%로써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2009년 8월 중국 재정수입 증가율은 36.1%를 기록하여 1~8월의 2.1%에 불과한 증가율을 훨씬 초월하였음. 이는 지난해 9월 Lehman Brothers(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후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인 것임.
- 8월 CPI 성장률은 -1.2%로써 하락폭이 둔화하였음. 8월의 CPI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이었지만,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나타냈음. 이는 중국이 현재 디플레이션을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 무역의 경우, 8월 중국 수출은 2~3% 하락폭을 지속하였음.
 - o 중국 수출현황을 볼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 1)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어 국제적 수요가 감소하였고, 2)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여 외부정책 리스크가 뚜렷이 상승하였음.

3. 중국경제에 대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둔화와 중국의 수출성장률 둔화

- 지난 5년간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대외무역의 기여도는 2%P에 달하였으나,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가 둔화되어 중국의 수출은 해외수요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음.
- 현재 중국정부는 내수확대와 외수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음.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역할 강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향후 단기간 소비가 경제성장의 견인동력으로 2%P를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중국 수출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난 5년간 10%의 경제 성장률에서 향후 8%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음.

□ 미국의 소비와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일본·한국은 소비와 수입을 확대하고 있어 3국 간 상호 투자 및 무역 협력 강화는 중국·일본·한국·아세안의 위기대처에 유리하다고 판단됨.

- 미국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더라도 2002년 이후 미국에서 나타난 은행 신용대출과 개인소비의 두 자리 증가율을 재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비 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와 동아시아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 인식

-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의 국제화로 인해 야기되었음. 각국 금융시장의 개방개혁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금융가격에 대한 영국 런던과 미국 월가의 영향이 점점 확대되었음.
- 영국 런던과 미국 월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구조적 리스크의 증가는 필연적이므로, 중국·한국·동아시아 각국은 리스크 분산·환헤징을 감안하여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을 강화해야 함.

□ 국제 통화체계의 불안정

-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제 통화체계의 위기에서 보듯이, 현재 전 세계는 상호 의존하는 지구촌으로 발전하였지만 합리적인 관리기구와 관리체제의 부족으로 인해 리스크가 큼.
- 이에 대해 중국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선택이 있음:

- 1) 첫째, IMF 조정과 특별 인출권 개혁 및 국제 통화체계에서의 국제협력 추진 등을 포함한 국제 통화체계 개혁을 추진. 하지만 국제 통화체계 개혁에 대해 확신이 없음.
- 2) 둘째, 1948년부터 시작한 유럽연맹과 1979년에 구축한 유럽 통화체계 및 1999년에 추진한 유로화 체계를 본받아 아세아에서도 유사한 체계를 구축.
- 3) 셋째,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을 가속화.

4. 중국의 대응 전략

□ 자본의 국제화 진척을 가속화

- 대외 금융자산의 국제화 운영능력을 향상시킴. 2009년 6월 말까지, 중국 외환비축 잔액은 2조 1,316억 달러 (중국대외 금융자산의 60%를 차지)이고, 그 중 미국국채는 8,015억 달러에 달함(지난 1년간 2,947억 달러 증가하였음).
- 국제자본시장에 진출하는 동시에, 중국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선물시장·외환시장 및 기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함.
- 외환비축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또한 외환시장에 대한 개인투자 허가, “해외투자(走出去)” 지원, 국내 구조 조정 추진, 국가 소프트 능력 강화 등 전략목표를 구축해야 함.
- 대외금융자산의 통화 종류를 개선하고 금융·직접투자·전략적 자원비축 등에 자산을 분배해야 함.

□ 산업의 국제화 진척을 가속화

- 중국의 국제화 생산 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해야 함.
- 향후 중국 산업의 국제화 진척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구성부분인 “해외투자(走出去)”에 따른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가공조립 시스템, 농업과 광산업 생산기지, 연구개발 설계 센터, 물자 조달 네트워크 등의 구축이 미래 대외무역에 전략적 조정의 중요한 내용임.
- 국제경쟁력이 약한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국제 물류, 기술무역, 금융보험은 서비스무역의 3대 적자 프로젝트임. 컨설팅과 자료 정보, 회계와 법률 등 전문적인 서비스업의 경쟁력 또한 강하지 못함.

□ 제품의 국제화 추진

-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 중국 다국적기업의 기업 내 무역, FOB무역과 중계무역 등 새로운 무역방식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기업의 종합물류와 글로벌

별 공급망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향후 10~15년 간 저렴한 노동력 우위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를 발굴해야 함.

- 지난 30년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던 가공무역과 외자유치 등 방법으로 향후 15년 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
- 현재 중국 공업기업은 기술혁신 능력이 부족하여 정책과 시장을 통해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30년간 중국은 시장을 기술로 바꾸기 위해 외자유치를 통하여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였지만 그 성과가 뚜렷하지 않았음.
- 새로운 경쟁우위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10~15년 상기 문제점을 조정해야 함. 향후 중국경제 발전에 있어서 도시화발전·자기혁신·경제의 국제화·기술혁신·서비스업 발전 등이 매우 중요함.

□ 국제적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성장과 세계 반덤핑건수는 반비례하는 추세를 나타내며, 최근에도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반덤핑건수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반덤핑, 반보조금, 특별보호조치, 기술 무역장벽 등 4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며, 중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에 대한 반덤핑 가격조사 진행 시, 제3국 데이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무역마찰은 모두 중국의 수출로 인해 발생된 것이므로, 중국은 하루속히 수출체제 개혁을 추진시켜야 할 것임.

<질의·응답>

질문 1.

중국의 FTA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1.

중국의 FTA 추진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감한 상품과 관련한 것임. 예를 들어 한국과 협상 시 한국의 민감한 분야인 농업이 가장 큰 문제임.

또한 중국의 FTA 추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개방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산업과 경제체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임.

질문 2.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방문 시(2009년 10월 21일~25일), 중미 간 타이어 특별보호조치 사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임.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특별보호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작년부터 중국 GDP 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는 마이너스를 지속하였음. 2009년 중국 GDP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답변 2.

특별보호조치 발생 배경은 금융위기임. 금융위기 상황에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임. 따라서 향후 방직, 비철금속, 야금, 철강 등 산업에서 특별보호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특별보호조치 차별화 대응은 201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생각함.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해결방법은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음. 즉 내부적인 수출 조정, 가장 광범한 통일전선 구축, 정면 대응을 통한 자국의 권리를 보장 등임. 보호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에 모두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임. 금융위기로 인해 무역 마찰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임. 개인적으로 이번 후진타오 주석이 미국을 방문

하여 비교적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

올 상반기 중국경제 성장에 대한 수출입의 기여도는 -2.9%였음. 2009년 초 중국 수출 성장률은 10~12% 하락하고 수입 성장률도 5~8%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였었음. 2010년에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미국의 경제는 현재의 -2.6~-2.8% 성장률에서 1.5~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질문 3.

- 1) 중국은 2005년 환율 제도를 조정한 후 작년부터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사실상 고정 환율이라고 볼 수 있음. 이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추진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고정적인 중국의 환율제도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가?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변경할 것으로 보는가?
- 2) 미국 국제 최대 보유국인 중국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달러 가치하락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3) 중국의 무역흑자액은 2004년도까지 200~300억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2005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WTO 가입 이외에 기타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답변 3.

- 1) 개인적으로 2000년이나 2001년이 위안화 평가절상에 가장 유리한 시기였다고 생각함. 현재 수출 하락을 감안할 경우 위안화 절하를 추진시켜야 하지만, 2조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고려할 경우 평가 절상해야 함. 따라서 위안화 평가 절하나 절상은 현재 모두 불리함. 따라서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고정적일 경우 요소시장의 조정에 유리하다고 생각함.
- 2)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확보하는 외환보유액은 6,000~8,000억 달러이면 충분할 것으로 봄. 남은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개인의 외환투자를 권장하고, 해외투자·중국 국내 구조조정 촉진·중국과 세계의 연결을 촉진시키는데 활용하도록 추진시켜야 함.
- 3) 무역흑자와 관련해서는 1990년대 후반 연평균 300억 달러 증가에서 최근 몇 년간 연평균 2,000

억 달러 증가하였음. 하지만 2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 즉 중국 무역흑자 총액은 여전히 가
공무역 흑자액 보다 작다는 점과 중국의 무역흑자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 전 세
계 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임.

질문 4.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부문은 중국의 수출입. 현재 무역총량은 감소되
었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무역마
찰, 무역 분쟁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하루속히 내수확대에 의존하여 중국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4.

중국은 내수확대와 수출안정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시켜야 함. 1987년 세계은행에서 한국·일
본·싱가포르 등 국가의 수출지향 발전모델을 소개하였을 때, 중국은 작은 경제국가의 경제 발전
모델을 경제규모가 큰 신흥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음. 사실이 입
증하다시피 이는 통하지 않았음.

수출지향 발전 전략이 중국에 유리한 점은 13억 국민의 사상을 개방하였고 국제화를 이해하도록
유도한 것임. 반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역마찰의 증가와 내수 및 내자기업을 장시간 경시하였다
는 점임. 내수확대가 되기까지 10~15년의 과도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소비확대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3가지 주의해야 함. 1)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야 함. 정
부·기업·개인 중 개인의 가처분소득 점유율을 증가시켜야 함. 2) 신용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개인소비 신용체계, 은행 신용대출 체계를 완비해야 함. 3) 소비환경의 개선임.

수출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도 중요함. 이번 금융위기에서 중국은 중국의 글로벌 판로가 좁다는
교훈을 얻었음. 과거 외환획득을 최우선 하던데서 수출판로·기술·브랜드 중시로 전환해야 함.
즉 무역의 규모를 중시하던 데서 무역의 질과 효과를 중시해야 함.

향후 중국은 저탄소경제 발전에 힘을 기울일 것임. 에너지절약, 이산화탄소 배출감축의 전략을

제시한 상황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중시하고 있음. 즉 1) 중국의 경제체제·산업체제·무역체제의 전환. 2) 신에너지·에너지절약·환경보호 관련 기술의 강화. 3) 에너지 관리 향상. 4) 국제화 추진 등임.